

# 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

고 용 취업자/실업자/물가

금 융 시장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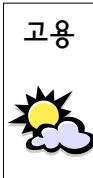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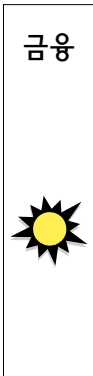
경기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회복 불투명
  - 산업생산은 제조업체의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7월중 14.0% 감소
  - 생산자 제품재고는 중공업부문의 큰 폭 감소로 인해 3.9% 감소



고용

- 서울의 고용여건 개선 미비
  - 취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0.6% 감소하고 실업률은 4.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
  - 허수도료 인상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7월중 소비자물가는 0.3% 상승



금융

- 금리 상승세 지속
  - 미국 장기금리 상승 및 정부의 추경편성 논의 등으로 인해 금리 0.21%p 상승
- 종합주가지수 최고치 갱신
  -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및 미국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종합주가지수는 10.23% 상승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 전망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영향으로 0.14% 상승
- 서울의 창업동향 개선
  - 신설법인수는 6월에 비해 6.4% 증가하고 어음부도율은 0.01%p 하락



부동산

- 서울의 건설경기 회복 불투명
  -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7월에 비해 41.9% 감소하여 하락세로 반전
-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 주택 매매가격은 6월에 비해 1.4% 상승하고 6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표〉 7월 주요경제 지표의 증감

(단위: %, %p)

구 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경기	산업생산	-0.8	-3.5	-16.4	-15.6	-14.0
	생산자 제품재고	13.0	11.3	5.7	0.7	-3.9
고용	실업률	0.6	-0.3	0.1	-0.1	0.0
	소비자물가	0.6	0.2	-0.3	-0.3	0.3
금융	국고채(3년)	-3.77	-0.15	-0.09	0.35	0.21
	환율	1.25	-1.8	1.1	1.76	0.14
부동산	건축허가면적	-71.7	-7.4	-17.4	4.5	-41.9
	주택매매가격	-0.3	0.7	0.6	1.4	1.4

주: 증감의 비교시점은 전년동월대비임, 단 금융, 고용, 주택매매는 전월대비임

기상도의 그림은 경기(산업생산), 고용(실업률), 금융(증권), 부동산(건설경기)의 상태를 나타냄

## | 생 · 산 |

## 전국 산업생산 증가, 서울 산업생산 감소

##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

- 전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에 비해 7.0% 증가
-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내수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비해 산업생산의 증가폭 확대
- 세부업종별로 반도체(23.3%), 자동차(20.8%), 영상음향통신(10.4%)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인쇄출판(-9.1%), 섬유제품(-8.9%)등은 감소함

## ○ 서울 산업생산 큰 폭 감소세 지속

- 서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에 비해 14.0% 감소
- 전국의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서울의 산업생산은 최근 3개월 연속 15% 내외의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함
- 이는 서울의 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와 음식료품 제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해석됨

## ○ 중공업 산업생산 3개월 연속 30%내외의 큰 폭 감소세 지속

-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보다 28.5% 감소하고 3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통신 및 통신장비(-58.8%), 고무 및 플라스틱(-31.0%), 기타기계 및 장비(-12.8%)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보다 6.6% 감소하고 2004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됨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29.3%), 인쇄출판(-10.6%)등이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6.7%), 종이제품(9.9%)등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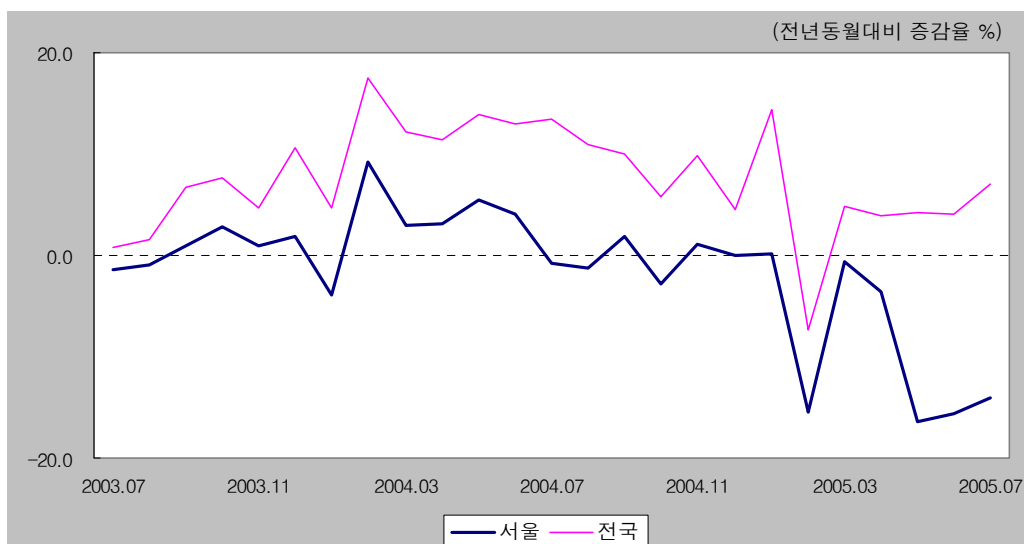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전국	13.5	3.9	4.2	4.1	7.0
	서울	-0.8	-3.5	-16.4	-15.6	-14.0
	중공업	-4.9	-6.4	-38.2	-33.0	-28.5
	경공업	1.5	-3.1	-3.9	-5.6	-6.6
전월비	전국	-0.5	-1.6	0.5	2.3	1.3
	서울	-0.4	-4.0	-13.5	-0.5	0.2
	중공업	-7.4	-16.5	-31.5	5.7	-1.1
	경공업	2.8	0.4	-2.1	-4.8	1.7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 · 하 |

### 생산자 제품출하 전국에 비해 큰 폭 감소세 지속

####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증가세 확대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7월에 비해 6.5% 증가
- 내수출하의 호조에 힘입어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 확대
- 세부업종별로 반도체(27.1%), 자동차(22.2%), 영상·음향·통신(7.5%)등이 큰 폭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인쇄출판(-9.8%), 섬유제품(-8.3%)등은 감소함

####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큰 폭 감소 지속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5.9% 감소함
- 전국의 제품출하와는 대조적으로 3개월 연속 큰 폭 감소가 지속됨
- 이는 서울의 주요 제조업인 의복 및 모피의 제품출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와 음식료품, 인쇄출판 등 대부분 산업의 감소세에 기인함

#### ○ 서울의 중공업 제품출하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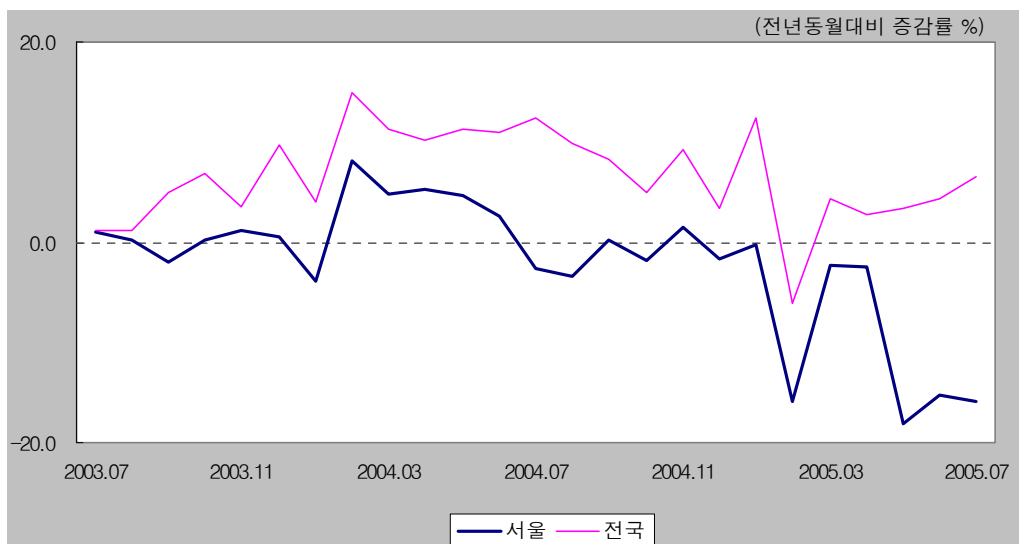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에 비해 36.2% 감소함
- 세부업종별로 중공업종 대부분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72.6%), 고무 및 플라스틱(-33.5%)등이 큰 폭으로 감소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에 비해 3.8% 감소하고 2004년 1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33.0%), 인쇄출판(-9.2%) 등이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16.1%)에서 증가를 나타냄

〈표〉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전국	12.4	2.8	3.5	4.3	6.5
	서울	-2.7	-2.5	-18.2	-15.2	-15.9
	중공업	-7.1	-1.8	-40.8	-34.9	-36.2
	경공업	0.0	-4.4	-4.3	-2.8	-3.8
전월비	전국	0.3	-1.8	0.3	4.2	1.0
	서울	-0.4	-2.0	-17.2	3.0	-2.6
	중공업	-3.0	-13.4	-39.1	7.0	-4.9
	경공업	1.4	0.7	-2.7	-0.9	0.3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동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 | 재 · 고 |

### 중공업 부문 감소세 주도로 마이너스 증가율로 반전

####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유지

-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7월 대비 8.4% 증가함
- 음식료, 화학제품, 기계장비업 등의 재고누적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 세부업종별로 제1차 금속(27.4%), 화학제품(16.9%), 기계장비(12.6%)등이 증가함
- 반면, 사무회계용 기계(-29.3%), 섬유제품(-7.8%), 기타전기기계(-4.9%)등에서 감소함

####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

-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7월 대비 3.9% 감소함
- 지난 4월(11.3%)이후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월중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이는 컴퓨터 및 사무기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등의 중공업 부문의 큰 폭 하락과 경공업 부문의 증가폭 둔화에 기인함

#### ○ 중공업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세 주도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에 비해 31.9% 감소하여 3개월 연속 30%내외의 큰 폭 감소세 지속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65.7%), 기타기계 및 장비(-53.7), 컴퓨터 및 사무기기(-52.3%)등이 감소세를 주도함
- 경공업부문은 7월중 11.0% 증가하고 지난달에 이어 증가폭 둔화가 지속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17.5%), 섬유제품(13.1%)이 증가한 반면, 종이제품(-47.5%), 가죽 및 신발(-29.8%)등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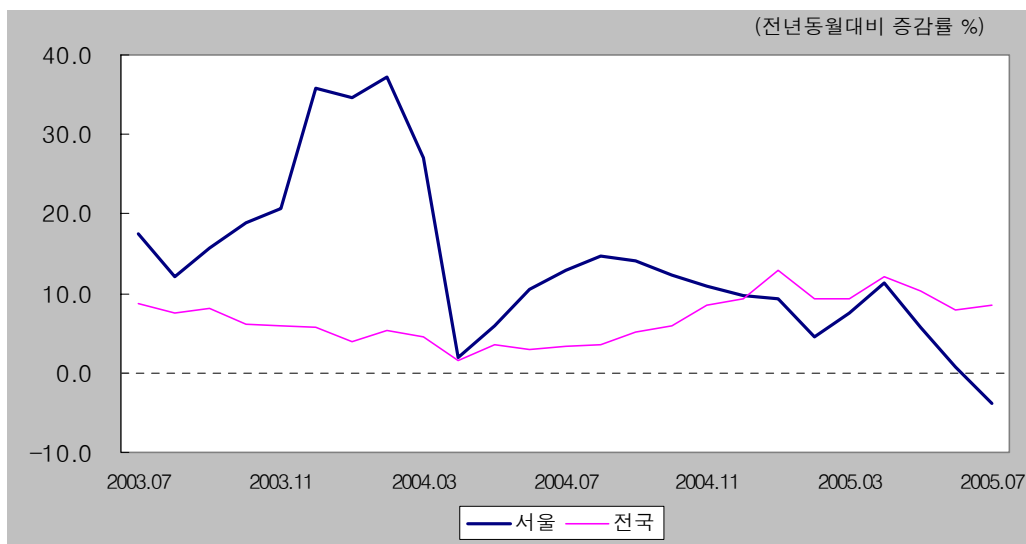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전국	3.4	12.0	10.3	8.0	8.4
	서울	13.0	11.3	5.7	0.7	-3.9
	중공업	-7.0	-12.2	-30.9	-29.2	-31.9
	경공업	27.5	22.7	25.1	16.0	11.0
전월비	전국	0.8	1.3	0.8	-2.7	1.1
	서울	2.6	-8.6	-0.9	-1.3	-2.1
	중공업	8.2	-28.3	-11.2	3.3	4.1
	경공업	4.0	2.2	5.3	-2.9	-0.5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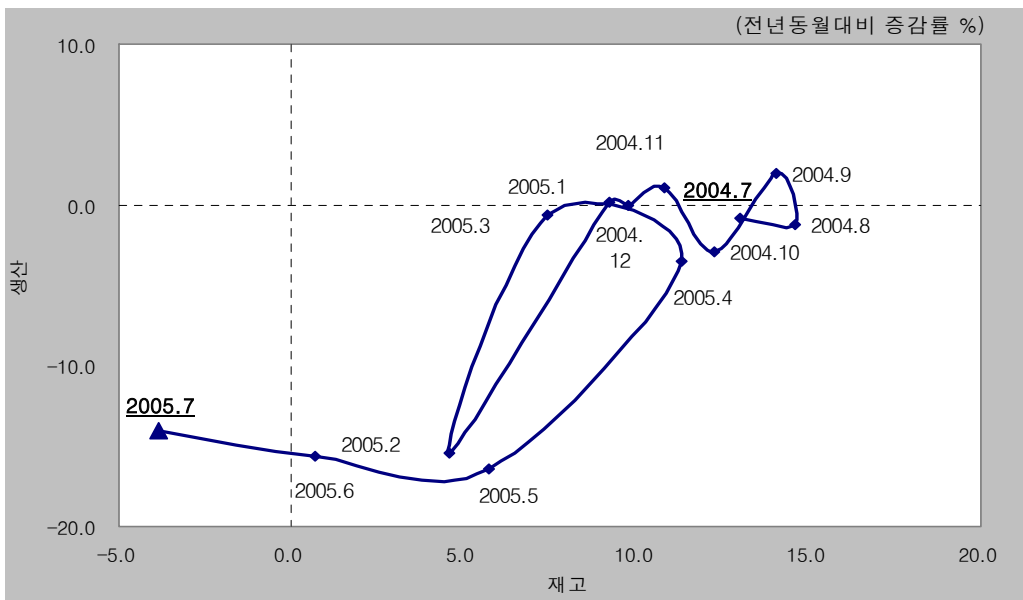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 산업생산 감소로 경기개선 미비

###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는 7월중 하락세 지속

- 생산·재고의 경기국면 분석에 의하면 서울 제조업 부문의 경기는 재고가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개선은 미비함
- 산업생산은 2005년 5월 이후 3개월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반면, 생산자 제품재고는 7월중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서울의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 ○ 서울의 7월 재고율 소폭 증가

- 전국의 재고율은 96.2%로 지난달보다 0.1%p 감소
- 서울의 재고율은 149.1%로 지난달보다 1.0%p 증가하였으며 지난 4월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는 재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하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기인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구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재고율	전국	102.5	102.9	103.2	96.3	96.2
	서울	129.6	129.7	155.1	148.1	149.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 서울의 고용여건 개선 미비

## ○ 전국의 취업자 소폭 감소

- 전국의 취업자는 23,184천명으로 지난달 비해 0.3% 감소
- 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지난 4개월간의 증가세를 멈추고 7월중 소폭 하락하였음
-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588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5% 증가

## ○ 서울의 취업자 감소

- 서울의 취업자는 4,908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0.6% 감소
- 서울의 취업자는 지난 5개월간의 증가세를 멈추고 7월중 소폭 하락
- 세부적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달에 비해 각각 0.7%와 0.4% 감소함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1.2% 증가한 1,140천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전반적인 감소세

-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 건설업이 19천명(-4.2%), 제조업이 6천명(-0.8%),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4천명(-0.7%), 도소매·음식숙박업이 8천명(-0.5%)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만 지난달에 비해 7천명(0.4%) 증가하였고 지난 7개월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나타내 경기활성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음

## ○ 자영업주 및 상용근로자 감소

-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주(-1.6%)와 상용근로자(-0.8%)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임시근로자는 1.4% 증가하여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천명(24.3%) 증가한 반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1천명(-0.7%), 서비스·판매종사자가 11천명(-0.8%), 사무종사자가 7천명(-1.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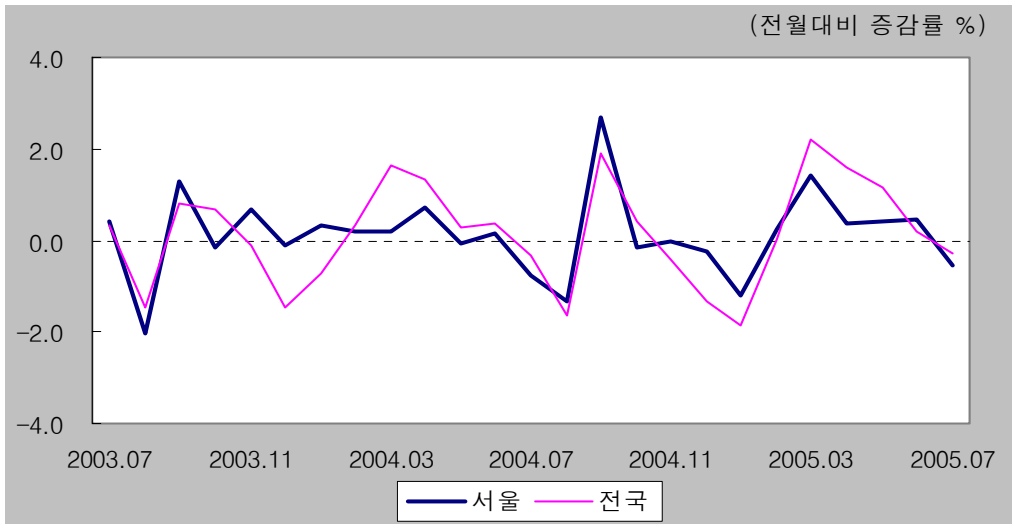
〈표〉 2005년 7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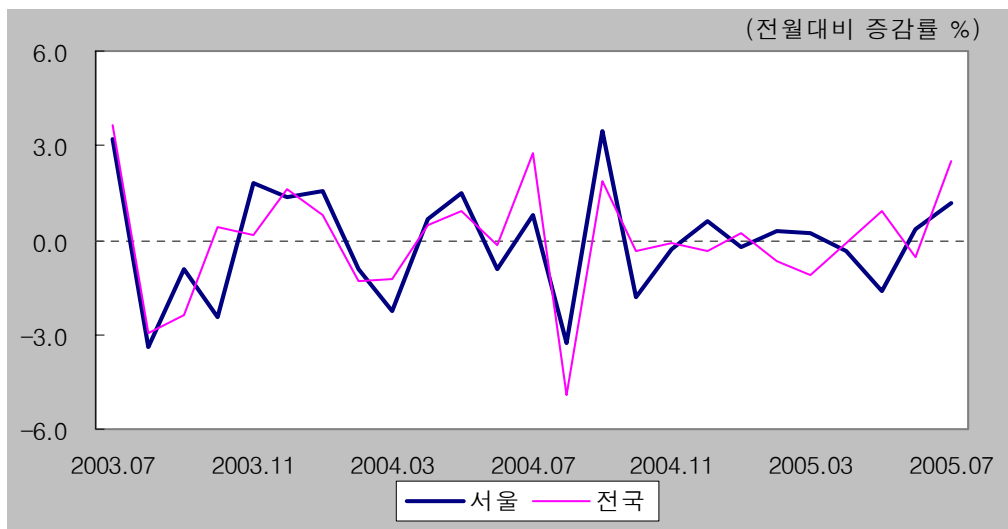
구 분		2004.7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국	22,750	23,246	23,184	434	1.9	-61	-0.3	
	서울	4,812	4,936	4,908	95	2.0	-28	-0.6	
청년층	전국	4,718	4,475	4,588	-130	-2.8	113	2.5	
취업자	서울	1,160	1,127	1,140	-19	-1.7	13	1.2	
성별	남자	2,779	2,839	2,819	40	1.4	-20	-0.7	
	여자	2,033	2,096	2,088	55	2.7	-8	-0.4	
서울	취업자	농림어업	5	6	6	2	30.6	1	14.3
		광공업	814	805	799	-15	-1.9	-6	-0.7
		제조업	813	804	798	-15	-1.9	-6	-0.8
		SOC 및 기타서비스업	3,994	4,125	4,103	109	2.7	-23	-0.5
		건설업	401	444	426	25	6.1	-19	-4.2
		도소매·음식숙박	1,406	1,424	1,417	11	0.8	-8	-0.5
		사업개안·공공서비스	1,665	1,731	1,739	74	4.4	7	0.4
		전기·운수·통신·금융	522	526	522	0	0.0	-4	-0.7

주: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실 · 업 · 률 |

## 실업률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 유지

### ○ 전국의 실업률 소폭 증가

- 전국의 실업자는 888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2% 증가
-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0.1%p 상승한 3.7%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 서울의 실업률 지난달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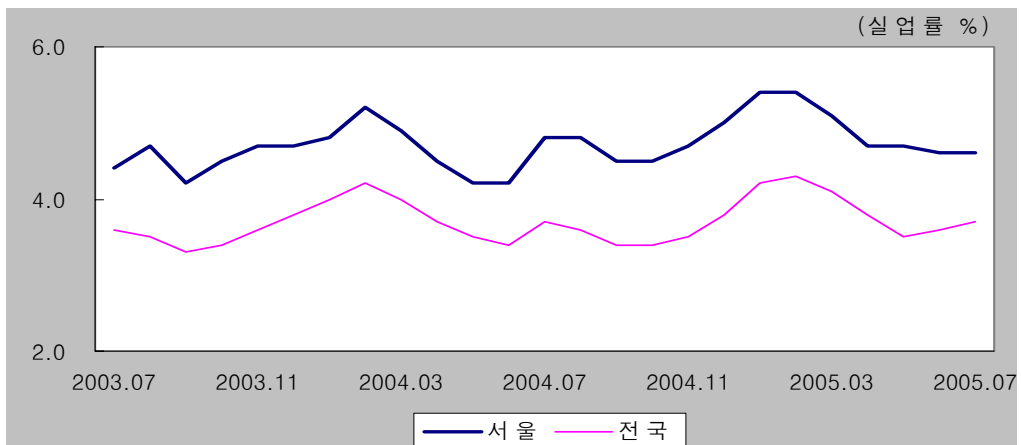
- 서울의 실업자는 238천명으로 지난달보다 0.7% 증가
- 실업률은 4.6%로 4개월 연속 4.6%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전국에 비해 0.9%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서울의 고용여건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표〉 2005년 7월 실업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7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865	878	888	23	2.6	11	1.2
	실업률	3.7	3.6	3.7	0.0	-	0.1	-
서울	실업자	242	237	238	-4	-1.5	2	0.7
	실업률	4.8	4.6	4.6	-0.2	-	0.0	-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물 · 가 |

## 소비자물가 상승

## ○ 전국의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

-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2개월간 하락세에서 반전하여 0.4% 상승
- 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함

## ○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

- 서울의 소비자물가도 지난 2개월간 하락세에서 반전하여 0.3%의 상승
- 이는 하수도료 인상과 석유류 가격상승으로 인해 광열·수도와 교통·통신 부문 등이 상승한데 기인함

## ○ 상품부문 및 서비스부문 모두 상승

- 상품성질별로는 상품부문 물가는 장마에 따른 출하감소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과 석유류 인상으로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달에 비해 0.6% 상승
- 서비스부문 물가는 하수도료 및 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0.2% 상승
- 비목별로는 광열·수도(3.4%)부문을 중심으로 교통·통신(1.0%), 식료품(0.3%) 등이 지난 달에 비해 상승하였고, 가구집기·가사용품(-0.3%), 주거비(-0.2%), 교양·오락(-0.1%) 등은 하락함

## ○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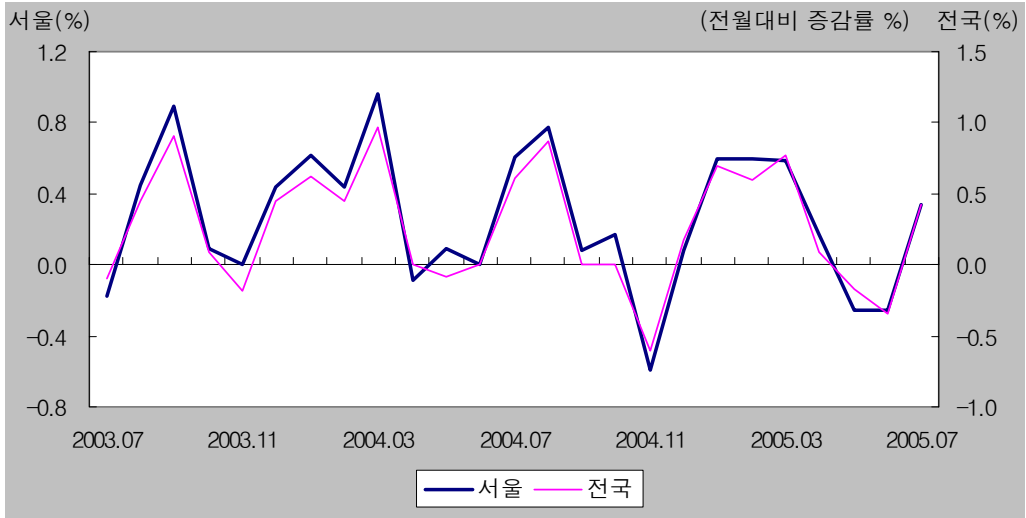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위주로 하는 생활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7%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3%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 단위: %)

구 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전국	4.4	3.1	3.1	2.7	2.5	
	서울	4.6	3.2	2.8	2.6	2.3	
	성질별	상품	6.1	4.7	4.2	3.3	3.5
		서비스	3.4	2.1	2.0	2.0	1.5
	생활물가	6.3	5.3	4.9	4.3	3.9	
	신선식품	20.3	8.8	8.8	5.6	2.5	
전월비	전국	0.6	0.1	-0.2	-0.3	0.4	
	서울	0.6	0.2	-0.3	-0.3	0.3	
	성질별	상품	0.4	0.5	-0.5	-0.8	0.6
		서비스	0.7	-0.2	0.1	0.1	0.2
	생활물가	1.0	0.2	-0.4	-0.6	0.7	
	신선식품	3.3	2.2	-4.1	-5.9	0.3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장기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수익률 상승세 지속, CD · 콜금리 하락세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상승세 지속

- 미국 장기금리 상승 및 정부의 추정편성 논의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7월중 0.21%p 상승한 4.23%를 나타냄
- 국채는 7월중 5.73조원 발행하고 4.80조원 상환되어 0.93조원 순증가함
- 회사채 수익률(3년)은 국고채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어 지난달에 비해 0.22%p 상승한 4.63%를 나타냄
- 회사채는 7월중 5.15조원 발행하고 3.36조원 상환되어 1.79조원 순증가함

○ CD 유통수익률은 하락세로 반전

- CD(91일)는 자산운용사의 MMF 수신 급증으로 CD 등 단기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달에 비해 0.05%p 하락한 3.49%를 기록
- 콜금리(1일)는 금융기관간의 단기의 자금대차 이자율로서 지난달에 비해 0.03%p 하락한 3.27%를 기록

○ 장단기 금리차는 증가세 지속

- 장·단기 금리차는 장기금리의 상승과 단기금리의 하락으로 인하여 월초 0.69%p에서 월말 0.96%p 으로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 지속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 %p)

구 분		2005.2	2005.3	2005.4	2005.5	2005.6	2005.7	전월비
금 리	국고채(3년)	4.04	3.91	3.76	3.67	4.02	4.23	0.21
	회사채(3년)	4.49	4.34	4.18	4.08	4.41	4.63	0.22
	CD(91일)	3.55	3.54	3.48	3.52	3.54	3.49	-0.05
	콜금리(1일)	3.28	3.26	3.29	3.29	3.30	3.27	-0.03
	장·단기 Spread	0.76	0.65	0.47	0.38	0.72	0.96	-
주 가	종합주가지수	1,011.36	965.68	911.30	970.21	1,008.16	1,111.29	10.23
	코스닥	498.38	455.03	424.40	471.48	503.21	546.68	8.64
환률(VUS\$)		1,006.0	1,015.5	997.10	1,007.70	1,025.40	1,026.80	0.14

주: 장단기 Spread: 국고채-call금리.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률은 전월대비 증감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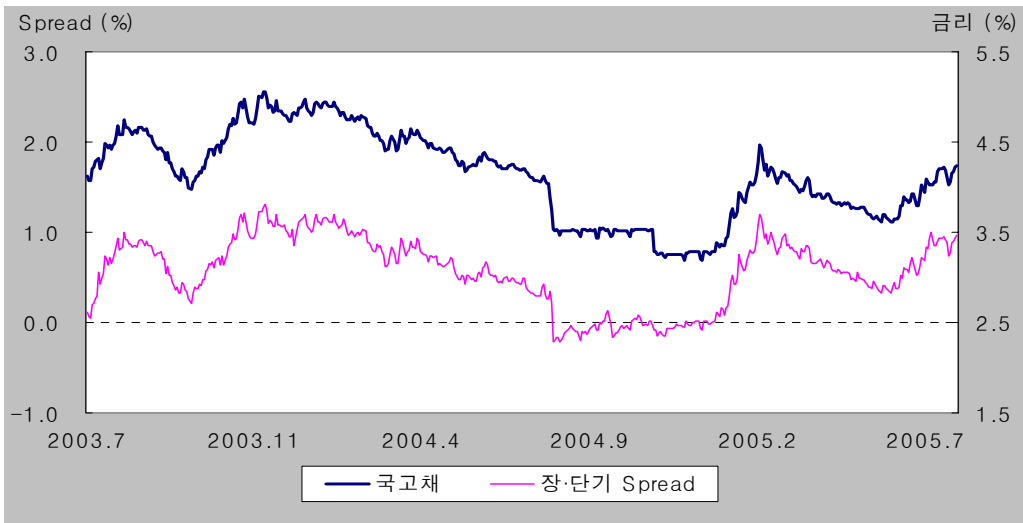


○ 주가는 7월중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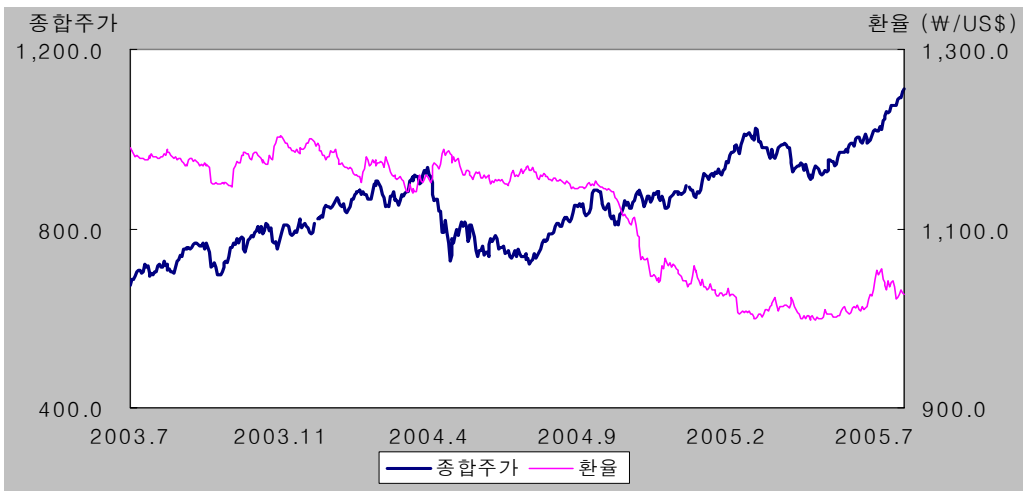
-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지속 및 미국 주가 상승 등에 기인하여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며 지난달에 비해 10.23% 상승한 1,111.29p를 나타냄
- 코스닥지수도 종합주가지수와 동반 상승하여 월말보다 8.64% 상승한 546.68p를 나타냄

○ 원/달러 환율은 7월중 전고후저의 등락 시현

- 원/달러 환율은 월 초반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전망으로 급등한 이후 월 후반 중국의 위안화 절상 단행으로 큰 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에 비해 0.14% 상승하여 월말에 1,026.80으로 마감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창·업·동·향 |

##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위주로 신설법인 수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
  -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479개 업체로 지난해대비 5.2%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22.1%), 서비스업(10.5%)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14.8%)은 감소
- 서울 신설법인 수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위주로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51개 업체로 지난해 대비 6.4%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43.2%), 건설 및 설비업(37.3%)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1.8%)은 감소
-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수는 1,403개 업체로 지난해 대비 1.8% 감소
  - 세부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9%), 사업서비스업(-11.9%)은 감소한 반면, 통신업(216.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68.6%), 운수업(58.3%)은 증가함
-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 증가
  - 제조업과 건설 및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감
  - 세부업종별로는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433.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18.2%)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29.2%), 자동차 및 운송장비(-11.1%)는 소폭 감소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 분	2004.7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257	4,679	4,479	222	5.2	-200	-4.3
서울	1,739	1,871	1,851	112	6.4	-20	-1.1
서비스업	1,428	1,476	1,403	-25	-1.8	-73	-4.9
제조업	185	231	265	80	43.2	34	14.7
건설 및 설비업	126	160	173	47	37.3	13	8.1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어음부도율 연중최저치 갱신

### ○ 전국의 어음부도율 감소

-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기 부도발생 업체의 추가부도 감소로 지난달에 비해 0.02%p 하락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48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21개 업체 감소

### ○ 서울의 어음부도율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지난달에 비해 0.01%p 하락하여 연중 최저치 갱신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95개 업체로 지난달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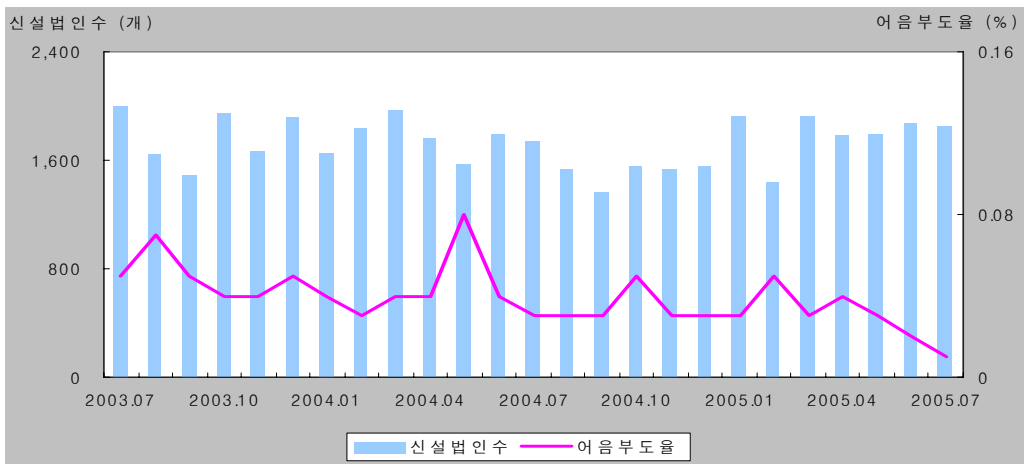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 %, %p)

구 분		2004.7	2005.6	2005.7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4	0.02	-0.02	-0.02
	부도업체 수	348	269	248	-100	-21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2	0.01	-0.02	-0.01
	부도업체 수	138	95	95	43	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건 · 설 · 경 · 기 |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감소로 건설경기 하락

##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세 지속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7월에 비해 20.2% 감소하고, 3개월 연속 하향세를 기록하였지만 감소폭은 줄어들음
- 이는 대전(-63.0%), 충청(-58.5%), 경기(-46.3%)지역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주(102.5%), 강원(165.8%), 경북(119.9%) 지역 등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함
- 건설발주액은 지난해 7월에 비해 7.6% 증가하였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33.8% 감소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세로 반전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7월에 비해 41.9% 감소하였으며, 몇 개월 동안 지속되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반전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6.2%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52.1% 감소함으로써 전체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를 주도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분		2004.7	2005.6	2005.7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10,089	8,569	8,050	-20.2	-6.1
서울		1,045	1,021	607	-41.9	-40.5
주거용	소계	136	300	172	26.2	-42.5
	단독	12	16	17	42.8	3.9
	연립	79	72	83	5.2	14.8
	아파트	46	211	71	56.0	-66.3
비주거용	소계	909	721	435	-52.1	-39.6
	상업	696	364	253	-63.7	-30.5
	공업	42	188	60	44.1	-68.1
	문교/사회	163	71	99	-39.5	38.9
	기타	9	99	25	170.8	-75.3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56%) 증가폭이 큼
- 비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상업(-63.7%)의 감소폭이 큼

○ 광진구, 은평구, 금천구의 건설경기 호조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광진구(1,136.5%), 은평구(759.1%), 금천구(492.3%), 구로구(267.5%)에서 큰 폭 상승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상업용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427.2%), 은평구(304.0%), 강북구(167.7%)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 건설발주액은 큰 폭 상승

- 서울의 건설발주액은 7월중 큰 폭(63.9%)으로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서울의 건설발주액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 7.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민간부문 및 건축부문 발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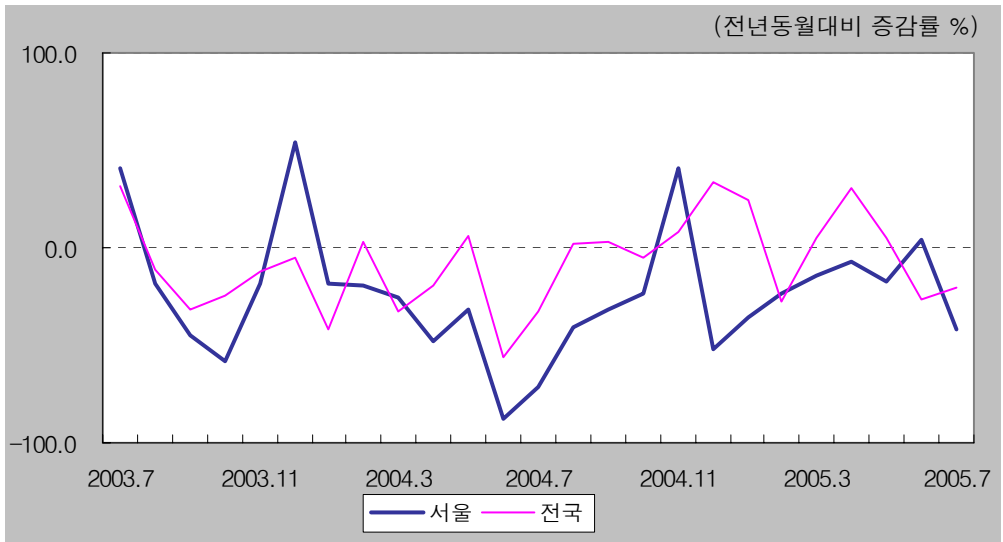
- 민간부문발주(187.5%)는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발주(-21.5%)는 감소하여, 지난달 공공부문발주의 큰 폭 증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건축부문발주(71.6%)는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발주(-60.7%)는 감소

〈표〉 건설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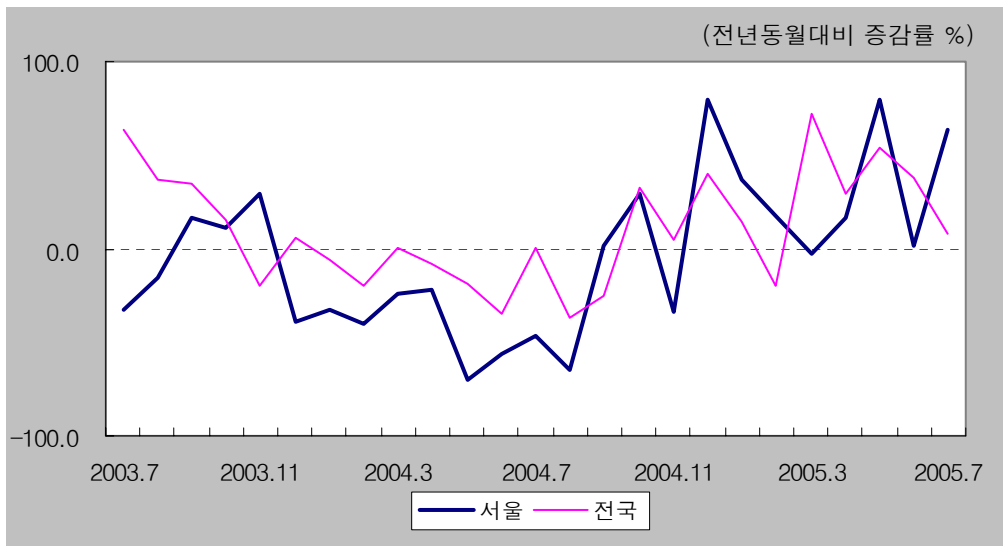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7	2005.6	2005.7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6,162,601	10,022,325	6,630,959	7.6	-33.8
서울		449,872	1,287,558	737,516	63.9	-42.7
발주자별	공공	43,155	342,279	33,891	-21.5	-90.1
	민간	242,956	900,548	698,566	187.5	-22.4
공종별	건축	418,637	1,262,952	718,228	71.6	-43.1
	토목	29,659	24,051	11,652	-60.7	-51.6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발주액 추이

## | 주 · 택 · 가 · 격 |

### 부동산 가격 6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 지속
  - 전국의 7월중 주택매매가격은 0.8% 상승하여 지난달과 동일한 폭으로 상승
  - 정부의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실거래는 부진한 가운데 상승세 지속
  - 주택전세가격은 장마철 비수기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며 7월중 0.1% 상승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 지속
  - 서울의 7월중 주택매매가격은 1.4% 상승하여 지난달과 동일한 폭으로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서울의 지역별 가격상승의 차별화 현상이 전월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증가
  - 강북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로 주택매매가격이 0.7%, 아파트 매매가격이 0.9%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증가됨
  - 주택매매가격은 구별로는 성동구(2.9%), 용산구(2.2%), 종로구(1.9%)의 상승폭이 크고, 중랑구(-0.2%)는 유일하게 하락한 곳으로 나타남
  - 아파트 매매가격은 구별로는 성동구(4.0%), 용산구(3.7%) 중구(2.1%)의 상승폭이 크고, 중랑구(-0.2%), 종로구(-0.1%)는 하락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전국	-0.3	0.6	0.5	0.8	0.8	
서울	-0.3	0.7	0.6	1.4	1.4	
아파트(서울)	-0.4	1.2	1.0	2.2	1.9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3	0.2	0.3	0.3	0.7
	강남	-0.3	1.2	0.9	2.4	2.0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둔화

- 강남은 주택매매가격이 2.0%, 아파트 매매가격이 2.6% 상승함으로써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됨
- 주택매매가격은 구별로는 서초구(4.2%), 강남구(3.4%)의 상승폭이 크고, 하락한 곳은 없음
- 아파트 매매가격은 구별로는 서초구(5.7%), 강남구(4.2%), 송파구(3.0%)의 상승폭이 크며, 하락한 곳은 없음

## ○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은 보합 상태

-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주택 전세가격은 7월중 보합 상태 유지
-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1%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강북은 0.3% 하락한 반면 강남은 지난달에 비해 0.3% 상승
- 구별로는 서초구(1.0%), 강남구(0.9%), 중구(0.3%)가 상승한 반면, 마포구(-1.4%), 동대문구(-0.8%), 강서구(-0.4%), 송파구(-0.2%)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아파트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중 0.3% 상승
-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은 0.6% 상승한 반면 강북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 상태
- 구별로는 중구(1.6%), 서초구(1.3%), 강남구(1.1%)의 상승폭이 크고, 성북구(-0.6%), 종로구(-0.4%), 은평구(-0.3%)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음

## ○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하락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7.3%로 지난 6월에 비해 0.4%p 하락
- 강북과 강남의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지난 6월에 비해 각각 0.4%p와 0.6%p 하락하여 강남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이는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전세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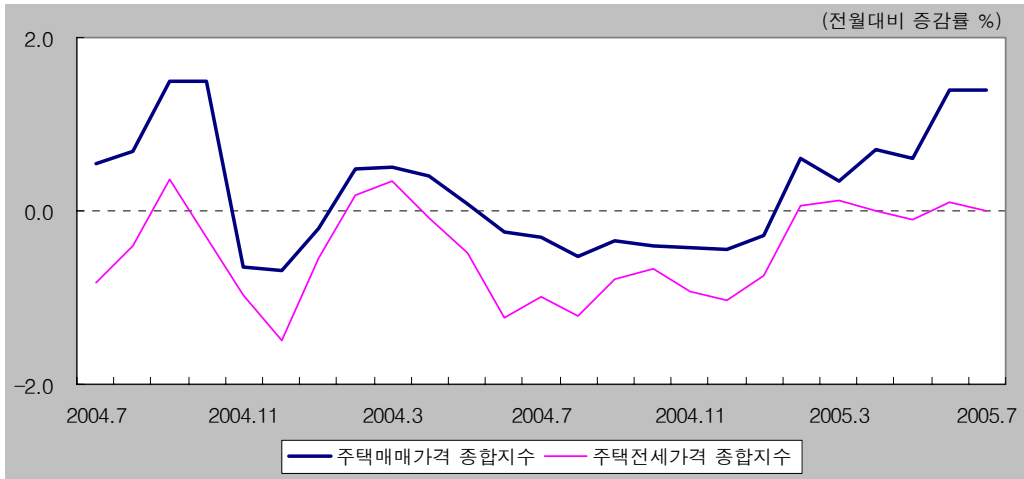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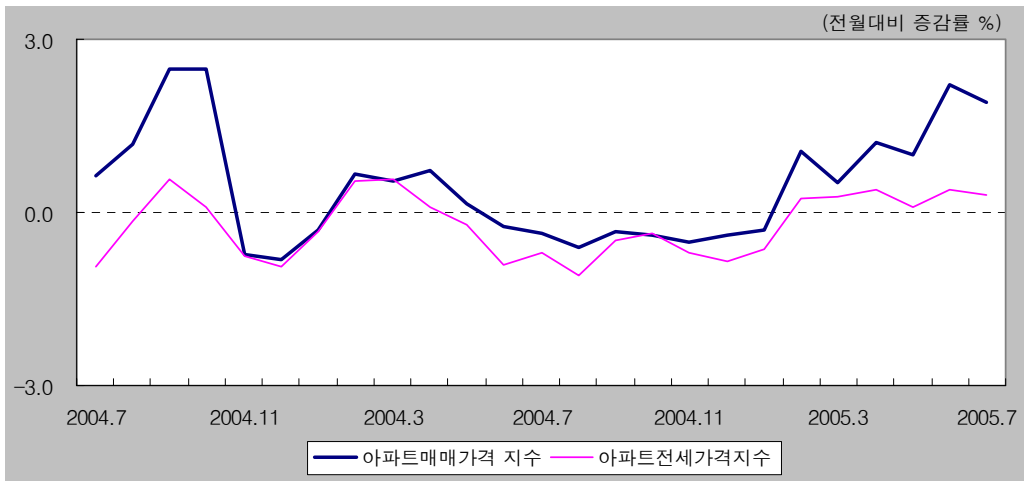
구 분		2004.7	2005.4	2005.5	2005.6	2005.7
전국		-0.8	0.4	0.1	0.2	0.1
서울		-1.0	0.0	-0.1	0.1	0.0
아파트(서울)		-0.7	0.4	0.1	0.4	0.3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8	-0.3	-0.2	-0.2	-0.3
	강남	-1.2	0.4	0.0	0.4	0.3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